

## 소년원의 성별에 따른 재입원 요인 연구: 성격, 관계, 소년원 내 징계를 중심으로\*

성 현 준                  임 광 현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소년원생이 재입원에 미치는 경로를 이해하고, 재입원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성격, 소년원 내 징계가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40명(남자 청소년 : 70명, 여자 청소년 : 70명)을 대상으로 PAI-A, 사회적 배제(또래관계 배제 경험), 아동기 피학대 경험, 범죄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초입원과 재입원 소년원생은 성별에 따라 성격특성이 구분되었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외현화(초조성과 자기중심성)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내현화와 외현화가 혼합된 유형으로(활동수준, 정신병적 경험, 부정적 관계) 재입원을 예측하는 성격특성이 구분되었다. 둘째, 대인관계가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남자 소년원생의 대인관계는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대인관계가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 여 소년원생의 모형적합도는 준수하였고,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가 소년원 재입원에 유의한 경로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계적 요인은 여자 소년원생만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특히 또래관계 배제 경험은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소년원 재입원에 간접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재입원에 있어 성별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는 재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각 성별에 따라 소년원 내 필요한 처우 제공의 시사점과 회복적 정의를 통한 소년원생의 긍정적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소년원, 소년법, 성별, 2요인, 징계, 재범, 재입원

\* 본 연구는 성현준(2021)의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년원생의 성별에 따른 재입원 요인 연구: 성격, 관계, 소년원 내 징계를 중심으로’ 중 일부를 요약,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64-42. Tel: 031-249-9198, E-mail: suejung@kyonggi.ac.kr



그림 1. 2020년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sup>1)</sup>

우리는 쉽게 청소년 범죄를 접하고 있으며, 한 해 청소년 관련 범죄를 검색하면 수많은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김정호, 2020; 세계일보, 2020; 한국경제, 2020; 국민일보, 2020). 이러한 언론의 노출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였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검찰청, 2019). 그러나 양적 감소와는 달리 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형법범죄 비율은 2009년 71.2%에서 2018년 82%로 증가하였고, 흉악범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8년 2.1%가 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2019).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확인된다. 국민청원 1호 안건은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로 소년법 폐지와 개정을 주장하는 글이었다(청와대, 2020).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고, 정부에서는 48호 답변으로 미성년자 형사법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규정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나타내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으며, 소년법에 대한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하향을 주장하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나타내는 동시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민수홍, 2019).

청소년 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하향을 주장하기 앞서 우리는 소년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내·외에서는 수많은 청소년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특수 상황에 있는 소년범과의 접촉이 어렵고, 필요한 변인을 탐색, 실험, 설문이 어렵기 때문이다(정유희, 손외철, 2016). 이는 소년법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중요한 요인을 간과하고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대처로 보일 수 있다.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하향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일본(齊藤豊治, 2007), 영국(범죄 및 비행에 관한 법률 제34조<sup>2)</sup>), 미국(박미량, 2014)은 실제로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하향을 실행하였었고, 그에 따라 청

1) Big Kinds 2021. 1. 10. 인출. 검색주제어: ‘청소년 범죄’

2) Crime and Disorder Act of 1998

소년 범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제법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박상식, 2017). 즉 중한처벌과 소년법 연령 하향 이후 소년법의 제법방지와 긍정적인 사회적응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은 보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청소년을 처벌하기 보단 보호하고, 중점을 두어 처분을 내리고 있다(박찬걸, 2013). 이는 청소년의 개도와 갱생의 입장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처분인 소년원 입원 이후 재입원을 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년 이내 소년원생의 재입원율은 9.5%였으나, 2016년에는 14%로 약 4.5%가 상승하였다(법무연수원, 2019). 이는 처벌적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개인 내·외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추연아 외, 2019). 소년원 퇴원 이후 재입원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다. 대표적으로 시설 부적응(이나현, 조운오, 2020), 역기능적 부모 요인(Claire, & Dixon, 2017; 김남규, 조운오, 2017), 성격요인(Yampolskaya, & Chuang, 2012; 임광현 외, 2020b), 또래관계 요인(허준, 2013), 성차(홍봉선, 2013)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김의철, 외, 2010)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와 종합적인 변인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소년원 재입원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임광현 외, 2020b). 관계적, 성격적, 환경적, 문화적 등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년원생의 경우 퇴원 이후 일상생활의 적응과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지선, 2005). 이를 종합하면 소년원생은 다양한 변인으로 사회적응과 일상생활 복귀에

실패하여 실제적 생존을 위한 범행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이 청소년기란 대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고려하여 성별, 가족, 사회 및 문화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소년원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성격적 요인(외현화)이 재입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임광현, 외, 2020b) 확장하고, 보완하기 위해 첫째, 성별을 구분하여 각 성별에 따른 2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생의 성차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를 토대로(홍봉선, 2013; 정유희, 안창일, 2004) 소년원생에게 구체적 개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위함이다. 둘째 성격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적 요인을 추가하여 투입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소년원생이 보이는 재입원에 확장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입원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실제적 개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재입원 소년원생의 관계적, 성격적, 소년원 내 징계의 취약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소년원생의 성격 특성은 성별에 따라 유형화 될 것이다.

연구가설 3. 소년원생의 성별에 따른 관계적 요인은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이는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나타낼 것이다.

### 소년원 재입원의 정의

재입원이란 재범과 다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재범은 과거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행한 것을 의미한다면(장영민, 탁희성, 1994), 소년원 재입원은 보다 보호처분 중 강한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시 입소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 재범에 있어 상당히 강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처분 도중 반복 범행으로 인하여 보다 중한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범과 재입원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활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주로 재범의 개념을 범죄학에선 '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에 이를 단순 사건조사로 설정할 것인지, 재판에서의 처분, 집행을 받은 범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박혜란, 2008).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입원을 재범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반복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 재입원을 측정하여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 소년원 재입원과 성별의 차이

소년원생의 성별에 따른 재입원 연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성차는 실제적으로 치료, 교육, 갱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른 재입원 예측은 주로 정신질환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비행성향이 강한 여자 청소년은 불안장애 약 59%, 주요우울장애 약 36%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보였다(Lederman, et al, 2004). 이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행 성향이 강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성 학대와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으며 정체성의 혼란과 성격형성에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최해연, 외, 2015).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존감, 무력감, 죄책감 등의 정서적 변화와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이 동반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Wytt, et al, 1992). 그러나 가출한 여자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생존을 위해 이를 순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가해, 무경험 집단을 구분하여 MMPI-A를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 피해 집단의 경우 자신을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사소한 결점과 단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방어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현숙, 외, 2006). 이러한 결과는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비행문제로 소년원에 입원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가해, 피해, 학대 등 복합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강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우울과 불안의 유병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ackett, et al, 2007). 이러한 정서적 장애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벗어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과 같은 요인과 확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김원경, 2014),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다양한 성격적 요인이 복합적인 문제행동으로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년범의 성별에 따른 비행요인 탐색 연구에서 여자 소년범은 남자 소년범에 비해 가족관계 중 심

리적 학대, 교우관계로 인하여 비행을 저질러 수사는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음주 및 약물 사용이 더 많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지선, 2016).

가족요인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모애착, 가족의 갈등, 학대 경험 등과 같은 요인이 상대적으로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낸다(김준호, 김은경, 1995). 이러한 영향으로 남자 청소년은 부모 요인이 비행과 관계가 없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Fagot, & Kavanagh, 1990). 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결국 청소년의 가출의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고 이는 청소년에게 위협적인 환경으로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Chesney-Lind, 1989).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차에 따른 범죄의 종류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범죄 조직에 참여하여 강도와 재산범죄를 나타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하였다(박진희, 김현주, 2012).

재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요인은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을 띠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관계속성에 중점을 둔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이혜정, 김범준, 2015).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부정적 경험은 외현적 문제로 나타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내현적 문제행동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양은경, 외, 2018).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행 청

소년의 성차에 따른 재입원 요인을 예측한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행동통제력과 범죄의 심각화가 비행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격 및 태도요인이 비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양은경, 외, 2018). 이는 성별에 따라 재입원은 서로 상의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행동통제력, 즉 규칙 혹은 규율 위반과 같은 소년원 내 징계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측되며,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정서와 성격뿐만 아니라 규율과 규칙 위반이 재입원에 중요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 2요인 분류에 근거한 재입원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중 내현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여 2요인 분류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Achenbach, et al, 2016; 유성희, 이수정, 2018, 홍정윤, 외, 2019; Ruiz, & Edens, 2008). 내현화 문제란 자신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주로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불안, 전화(신체화) 등과 같은 요인을 의미한다(Ruiz, & Edens, 2008). 외현화 문제의 경우 자신을 과소 통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공격성, 충동성, 언어 공격 행동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Ruiz, & Edens, 2008). 2요인 분류는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내현화와 외현화로 구분한 객관적 양적 분류법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표 1. Ruiz & Edens와 국내 연구에 따른 2요인 모형 구분

연구자	연구대상	요인	
		내현화	외현화
Ruiz & Edens	성인 수형자	SOM, ANX, ARD, DEP, SCZ, SUI, BOR	MAN, PAR, BOR, ANT, ALC, DRG, AGG
유성희 & 이수정	소년원생 및 고등학생	SOM, ANX, ARD, DEP, PAR, SCZ, SUI, BOR, STR	MAN, BOR, ANT, ALC, DRG, AGG
홍정윤, 홍상황 & 이수정	성인 수형자 및 교도관	SOM, ANX, ARD, DEP, PAR, SCZ, DRG, SUI, BOR	MAN, ANT, ALC, AGG
박은영, 박은영 & 홍상황	일반 청소년	SOM_S, ANX_C, ANX_A, ANX_P, ARD_P, DEP_C, DEP_A, BOR_A, BOR_I, BOR_N, SCZ_T, PAR_H, SUI	ANT_A, ANT_E, ANT_S, AGG_A, AGG_P, BOR_S, MAN_I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icks-Nelson, & Lsrael, 2015).

2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소년원생의 재입원을 예측하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외현화 요인(조증, 경계성적 특성, 반사회적 특성, 알코올 문제)이 재입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임광현 외, 2020b).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2요인 이론을 통하여 위험군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의 경우 외현화 요인(알코올 문제, 반사회적 특성, 공격성, 폭력 및 공격성 위험 지표)이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지현, 외, 2019).

이러한 외현화 문제는 결국 자기 통제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반사회적 특성과 알코올 문제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결국 재입원에 유의한 변인으로 강조된다(Salekin, 2008). 또한 소년원생이 일상적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외현화 행동으로 발현되는 경로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김재수, 손철우, 2019), 이는 재입원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소년원 재입원에 대한 다각적 연구

재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요인이 추출되고 있지만 실제 재수감, 재입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윤일중 외(2012)는 소년원생의 총 범죄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소년원생 1,085명을 대상으로 정서, 인성, 지능, 심리,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최초 비행연령, 인지정서, 자아개념, 반사회성이 총 범죄 수에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생의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학적, 인지적, 성격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가정, 열악한 경제적 환경 등)과 함께 작용하여 재입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소년원 퇴원 이후 재입원은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는 경우 40%~60%의 청소년은 건강 이상 악화와 알코올 문제 및 약물 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나타낸다(Altschuler, & Brash, 2004). 또한 경제적 지원 및 부모의 부재,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구직활동 제한, 가족갈등의 심화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는 재입원에 주요 원인으로 확인 되었다(Bullis, et al, 2004). 소년원 퇴원 청소년 223명을 대상으로 재입원 유발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전체 인원 중 6.7%는 폭력범죄, 11.9%는 절도범죄, 4.9%는 환각제 및 약물 중독 문제, 2.6%는 흉악범죄(흉기활용 폭력사건, 성범죄)로 표본의 약 23%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오, 2012). 이에 따른 구체적 원인으로 가족기능, 보호관찰 요인, 가출횟수, 성별, 보호관찰관과의 접촉횟수, 가출, 비행친구와의 교우 및 문제행동의 질은 재입원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조운오, 2012).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가족 기능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또래의 기능의 중요성이 청소년 범죄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결과로 판단된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9년 법무부 소년원생 위험성 평가도구 특수인성검사 재표준화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미희 외(2019), 성현준 외(2019), 임광현 외(2020a; 2020b)에 활용한 자료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총 3곳의 소년보호시설(서울, 안양, 청주 소년보호시설, 이하 소년원)에 입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생 중 중·장기처분(9호~10호)을 받은 청소년 140명(남 : 70명, 여 : 70명)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소년원 담당교사가 무작위 표집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 동안 14회 소년원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재방문 시 조기 퇴원을 한 여자 청소년 1명을 제외한 139명 중 성격평가 질문지(PAI-A)를 불성실하게 실시한 7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PAI-A에서 제시한 타당도 척도(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의 결과 수치를 초과한(김영환 외, 2006; Morey, 2003) 2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0명(남 : 64명, 여 : 6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chi^2$ ),  $t$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러한 비율 및 평균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본 연구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입원 당시 범행( $\chi^2 = 25.78$ ,  $p < .001$ )은 성별에 유의한 비율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재산범죄(75%)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재산범죄(35%), 기타범죄(28%), 폭력범죄(24%) 순으로 남자 소년원생에 비해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또한 명목척도로 해당되는 학력, 경제수준, 정신병력 유무, 재입원 유무는  $t$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입원 당시 범행은 연구모형에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

표 2. 연구 참여자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비율) 및 평균(표준편차)		$\chi^2$	$t$	
	남	여			
성별	64명(49%)	66명(51%)			
연령	16.86(1.47)	17.15(1.44)	10.45	-1.13	
학력	초등 졸업 미만	-	1명(1%)	2.55	-
	초등 졸업	13명(20%)	12명(18%)		
	중학교 졸업	36명(56%)	40명(61%)		
	고등 졸업	15명(24%)	12명(18%)		
	대학교 재학	-	1명(1%)		
경제수준	하	23명(36%)	21명(32%)	6.75	-
	중	35명(55%)	30명(45%)		
	상	6명(9%)	15명(23%)		
정신병력 유무	유	11명(17%)	15명(23%)	0.62	-
	무	53명(83%)	51명(77%)		
경찰조사 횟수	0회	-	1명(1%)	5.25	0.27
	1회	14명(22%)	16명(24%)		
	2회	21명(33%)	25명(38%)		
	3~5회	27명(42%)	22명(34%)		
	6회 이상	2명(3%)	2명(3%)		
소년원 내 징계횟수	0회	32명(50%)	40명(61%)	8.49	-0.03
	1회	11명(17%)	11명(17%)		
	2회	10명(16%)	4명(6%)		
	3~5회	10명(16%)	7명(10%)		
	6회 이상	1명(1%)	4명(6%)		
입원 당시 범행	재산범죄	48명(75%)	23명(35%)	25.78***	-
	폭력범죄	5명(8%)	16명(24%)		
	성범죄	4명(6%)	8명(12%)		
	교통범죄	3명(5%)	1명(1%)		
	기타범죄	4명(6%)	18명(28%)		
재입원 유무	유	42명(66%)	45명(68%)	0.09	-
	무	22명(34%)	21명(32%)		

\*\*\* $p < .001$



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조력자를 선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년원을 방문하여 면담 및 설문서를 위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총 16명(범죄심리학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11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소년원생의 특성 및 검사 도구와 면담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의 목적은 조력자 간 전문성 격차를 줄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교육의 주제는 심리검사 실시방법 및 소년원생의 이해 특강(이하 1차시 교육) 1회, 간이모의 검사 훈련(이하 2차시 교육) 1회로 실시하였다. 1차시 교육은 지능검사, 성격검사, 인지기능검사, 소년원생의 특성에 따른 면담기술 습득으로 구성하였다. 1차시 교육 강사는 현재 교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범죄심리학 박사과정 2인이 진행하였다. 2차시 교육은 감독자 1인이 지도에 따라 조력인들을 2인 1조로 구성한 이후 서로 검사자와 피검자의 입장으로 검사수행을 함으로써 검사를 받는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는 1차시에서 습득한 심리검사 시행 절차와 도구의 이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함이다.

각 소년원 방문 시 약 10명의 조력인이 투입되어 소년원생과 1:1형식으로 검사와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는 소년원생의 특성으로 검사 및 설문서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질문 중 이

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후 최종 자료에서 결측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조력인 배정으로 1인은 전체적 감독과 진행을 담당하였고, 3인은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집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2인은 PAI-A검사, 2인은 인지기능검사, 2인은 PAI-A와 인지기능검사를 제외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면담은 비행측발요인 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면담에 투입된 조력인은 범죄심리사 1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검사 실시 전 소년원생의 담당교사로부터 자필 동의서를 받았으며, 소년원생에게는 언제든지 검사 및 설문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개인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는 번호가 작성된 명찰로 식별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소년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4시간 가량 소요되었고, 검사 이후 교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은 없었으며, 소정의 간식이 제공되었다.

#### 측정도구

#####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 개인요인과 범죄요인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정신병력 유무, 연구 참여자가 인지하는 경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범죄요인으로는 처분을 받진 않았으나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횟수, 소년원 내 시설규칙위반 혹은 생활적 문제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횟수, 입원 당시 범행,

중·장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재입원 횡수를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범죄요인은 소년원 담당교사를 통해 확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횡수의 경우 실제 재범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직접 인지하고 있는 횡수를 확인하였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sup>3)</sup> 표 2의 빈도로만 제시하였고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입원 당시 범행의 경우 연구 편의성을 위해 연구자가 가공하였다. 소년원생이 입원 당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던 죄명은 총 52개였으나, 이를 범주화하기 위해 범죄분석(검찰청, 2019)의 구분을 토대로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사문서 위조(주민등록증 위조 등), 협박, 사유지 침입, 보호관찰 위반 등과 같은 죄명의 경우 구분에 충족되지 않아 기타 범죄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년원생의 경우 하나의 범행으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중복범죄로 인하여 장기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첫 번째 범행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Adolescent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A)

소년원생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 PAI-A를 실시하였다. PAI-A는 Morey(2003)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김영환 외(2006)이 번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 타당화 한 청소년 성격 측정 도구이다. PAI-A의 경우 일반 청소년 외 비행

3) 재입원 횡수(소년원 담당 교사 확인)는 2번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찰조사 횡수(연구참여자 보고)가 1번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을 위해 사법 및 교육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김대진 외, 2015), 특히 재범 위험성을 평가를 위해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검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이남희, 이봉건, 2009).

본 척도는 4점 리커트(Likert Scale)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 ~ 3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고, 피검사자는 자신과 가장 유사한 답을 선택하도록 실시한다. 이는 점수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성격특성이 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PAI-A의 해석은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점으로 환산되어 T점수 60점 이하는 피검사의 약 84%가 분포되어 있으며, 70점 이하는 98%로 나타나 2표준 편차를 벗어난 70점 이상의 점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치로 판단된다(김영환 외, 2006).

###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또래관계 배제)

소년원생의 성격 형성의 요인을 관계 내에서 발달 되는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경험척도를 활용하여 또래관계 내 파생되는 부정적 경험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는 Gilman, et al, (2013)가 개발한 사회적 배제 성향 척도를 이병관 외(2019)가 번안하여 타당화 한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척도로 또래관계 내 '무시'와 '거절'로 구성되어있다. 무시 경험은 '사람들은 대화하는 중 나를 무시한다.', '사람들은 내 의견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 등과 같이 총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거절 경험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말 여가활동이나 취미를 함께하자고 한다.', '사람들은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등과 같이 무시 경험과 차별된 역문항으로 총 8개의 질문으로 구

성되어있다.

이병관 외(2019)의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변안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가독성과 문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7문항의 단어를 소폭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의 대표적 예시는 ‘여가를 함께하고자 한다.’를 ‘함께 놀려고 한다.’로 단어를 변경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 5점 리커트(Likert Scale)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을 자신과 유사한 상황을 선택하는 형식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하위척도의 결과 값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 내에서 무시와 거절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병관 외(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적 일치도는 무시 경험 .95, 거절 경험 .8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무시 경험 .95, 거절 경험 .97로 나타났으며, 남자 소년원생의 무시 경험 .91, 거절 경험 .82, 여자 소년원생의 무시 경험 .95, 거절 경험 .90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척도

소년원생의 성격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 내 변인으로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Straus, et al, (1996)이 개발한 갈등관리 행동 척도(Conflict Tactic Scale(CTS), Conflict Tactic Scale II(CTS-II))를 장덕희(2001)가 번안,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아동학대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학대 경험은 7문항으로 ‘부모님이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등과 같이 신체적 위협과 ‘부모님이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등과 같이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

학대를 포함한다. 신체학대 경험은 6문항으로 ‘부모님이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등과 같이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문항, 5점 리커트(Likert Scale) 형식으로 1점 ‘전혀 없다.’, 2점 ‘1년에 1~2회’, 3점 ‘한 달에 1~2회’, 4점 ‘1주일에 1회 이상’, 5점 ‘거의 매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빈번하고 강한 수준의 학대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해석하였다. 장덕희(2001)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8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6, 남자 소년원생 .94, 여자 소년원생 .97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방법

소년원생들의 재입원에 미치는 성격적, 관계적, 소년원 내 징계를 탐색하고 성별에 맞는 경로모형을 추출하기 위해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성차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검증( $\chi^2$ ),  $t$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재입원 유무를 집단으로 구성하여 PAI-A 임상 척도의 상위요인을  $t$ -분석하였다. 셋째, 유의한 상위변인을 토대로 하위유형을 추출하여  $t$ -분석하였다. 넷째, 성별에 맞는 성격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재입원에 미치는 성격변인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관계요인이 성격특성, 소년원 내 징계 및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AMOS 20.0을 활용하였다.

## 결 과

### 성별에 따른 최초입원과 재입원 요인 비교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재입원 성격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최초입원과 재입원 소년원생을 집단 구분으로 각 성별에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3은 성별에 따른 최초입원과 재입원 소년원생의 성격적, 관계적 소년원 내 징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을 파일 분할하여  $t$ -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는 최종분석으로 활용할 소년원생들의 성격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2중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p < .10$  수준의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성태제, 2019). 이후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요인분석, 경로분석)에서는  $p < .05$  수준의 유의확률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성격적 요인에서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MAN( $t = -2.98, p < .01$ ), BOR( $t = -1.67, p < .10$ ), ANT( $t = -2.26, p < .05$ )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SOZ( $t = -1.96, p < .05$ ), BOR( $t = -1.62, p < .10$ ), ALC( $t = -2.09, p < .05$ ), DRG( $t = -1.81, p < .1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남, 여 모두 재입원 청소년이 최초입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관계적 요인에서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재입원 남자 소년원생이 더 많은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을 나타냈다( $t = -2.07, p < .05$ ). 소년원 내 징계 횟수는 남, 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재입원 소년원생이 더 많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  $t = -4.03, p < .001$ , 여 :  $t = -3.95, p < .001$ ).

표 4는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유의한 상위변인을 토대로 하위변인을 추출하여 관계와 성격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성격적 요

인에서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MAN-G( $t = -3.05, p < .01$ ), MAN-I( $t = -1.95, p < .10$ ), ANT-E( $t = -1.92, p < .1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재입원 소년원생이 최초입원 소년원생에 비해 높은 성격특성을 보였다.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MAN-A( $t = -1.77, p < .10$ ), SCZ-P( $t = -1.82, p < .10$ ), BOR-N( $t = -2.88,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역시 재입원 여자 소년원생이 높은 성격특성을 보였다.

관계적 요인으로는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또래관계 내 무시 경험( $t = -1.80, p < .10$ ), 정서학대( $t = -1.87, p < .10$ ), 신체학대( $t = -2.10,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는 재입원 소년원생이 더 많은 부정적 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관계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 구성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최초입원과 재입원 소년원생의  $t$ -분석 결과에 따른 유의한 요인(MAN-G, MAN-I, ANT-E)을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은 최대 우도, 회전방법은 Kaiser-정교화를 이용한 오블리민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오블리민 회전은 주축분해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목적이 요인 구조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김효창, 2014).

분석결과 남자 소년원생의 재입원과 관련된 성격특성은 1요인으로 나타났다. KMO적합도는 .60이며, 구형성 검증은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세 가지 척도 중 MAN-G의 경우 공

표 3. 성별에 따른 최초, 재입원 간의 주요요인 t-분석 결과

구분		재입원(N = 87)		t	
		남:42명, 여:45명	남:22명, 여:21명		
		M(SD)	M(SD)		
성격요인	SOM (신체적 호소)	남	47.33(8.96)	47.05(8.78)	-0.12
		여	54.87(12.17)	52.71(13.58)	-0.64
	ANX(불안)	남	49.40(11.69)	47.32(10.28)	-0.70
		여	64.02(14.43)	59.33(16.43)	-1.17
	ARD (불안관련 장애)	남	48.33(9.29)	46.55(9.33)	-0.73
		여	59.36(11.13)	55.29(12.33)	-1.33
	DEP(우울)	남	43.64(11.68)	47.18(12.93)	1.10
		여	58.93(16.37)	53.33(16.98)	-1.27
	MAN(조증)	남	50.95(9.87)	43.86(8.53)	-2.98**
		여	56.76(9.48)	53.62(10.44)	0.66
	PAR(망상)	남	45.00(10.77)	45.77(12.24)	0.26
		여	56.24(16.61)	52.62(14.61)	0.97
	SCZ (조현병)	남	47.10(10.02)	45.91(10.35)	-0.44
		여	56.84(13.87)	50.33(11.87)	-1.96*
	BOR (경계성 특성)	남	52.00(9.36)	47.05(12.07)	-1.67†
		여	64.91(11.96)	59.52(13.69)	-1.62†
ANT (반사회적 특성)	남	56.88(8.36)	51.05(10.43)	-2.26*	
	여	58.71(13.56)	55.81(11.32)	-0.85	
ALC (알코올 문제)	남	51.31(9.43)	50.32(8.88)	-0.40	
	여	60.02(12.89)	52.33(13.34)	-2.09*	
DRG (약물문제)	남	48.90(10.46)	50.27(8.93)	0.52	
	여	54.02(12.14)	48.57(10.93)	-1.81†	
관계요인	또래관계 배제 경험	남	29.90(7.76)	28.23(6.39)	-0.87
		여	34.22(13.60)	30.86(10.91)	-0.99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	남	24.36(12.13)	19.77(5.50)	-2.07*
		여	27.64(16.40)	26.95(15.70)	-0.16
소년원 내 징계	남	1.52(1.62)	0.36(0.65)	-4.03***	
	여	1.60(2.36)	0.14(0.47)	-3.95***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최초, 재입원 간 관계 및 성격요인 t-분석 결과(하위요인)

구분		재입원(N = 87)		최초입원(N = 43)	r
		남 : 42, 여 : 45		남 : 22, 여 : 21	
		M(SD)		M(SD)	
MAN-A (활동수준)	남	46.93(8.97)		44.64(9.16)	-0.63
	여	56.20(11.77)		51.48(9.12)	-1.77†
MAN-G (과대성)	남	53.67(12.32)		45.50(8.80)	-3.05**
	여	50.36(10.70)		52.24(12.13)	0.60
MAN-I (초조성)	남	50.00(10.55)		44.77(9.93)	-1.95†
	여	59.44(9.77)		54.71(12.13)	-1.70
SCZ-P (정신병적 경험)	남	48.93(10.43)		45.82(8.36)	-1.20
	여	53.80(9.77)		48.81(12.38)	-1.82†
SCZ-S (사회적 위축)	남	44.38(8.82)		62.14(70.01)	1.05
	여	49.20(13.88)		45.33(12.38)	-1.08
SCZ-T (사고장애)	남	49.45(9.65)		47.77(10.81)	-0.63
	여	61.31(11.50)		55.76(13.18)	-1.74
BOR-A (정서적 불안정)	남	49.64(10.35)		47.18(12.71)	-0.83
	여	59.40(12.75)		54.71(15.64)	-1.29
BOR-I (정체성 문제)	남	49.52(9.59)		46.50(11.85)	-1.10
	여	63.69(12.12)		59.67(12.66)	-1.23
BOR-N (부정적 관계)	남	52.02(10.23)		48.41(11.79)	-1.27
	여	61.62(10.41)		53.48(10.80)	-2.88**
BOR-S (자기손상)	남	53.17(9.97)		51.68(12.94)	-0.51
	여	62.13(11.59)		12.43(61.76)	-0.11
ANT-A (반사회적 행동)	남	58.21(7.18)		56.36(11.35)	-0.79
	여	57.96(11.24)		54.38(9.50)	-1.26
ANT-E (자기중심성)	남	52.29(9.66)		47.64(8.88)	-1.92†
	여	55.36(13.74)		54.38(9.50)	-0.22
ANT-S (자극추구)	남	54.26(9.43)		50.82(12.91)	-1.24
	여	56.96(12.29)		54.43(11.19)	-0.22
또래관계 배제_무시	남	10.90(3.73)		9.41(2.78)	-1.80†
	여	14.27(7.18)		12.05(6.03)	-1.22
또래관계 배제_거절	남	19.00(5.54)		18.82(4.37)	-0.13
	여	19.96(7.09)		18.81(5.70)	-0.64
아동기_정서학대	남	14.07(7.57)		11.45(3.55)	-1.87†
	여	15.67(9.49)		15.14(8.73)	-0.21
아동기_신체학대	남	14.07(7.57)		11.45(3.55)	-2.10*
	여	11.98(7.56)		11.91(7.28)	-0.08

†  $p < .10$ , \* $p < .05$ , \*\* $p < .01$

표 5.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구성 요인분석 결과

척도	요인 적재량	공통성
MAN-G(과대성)	.42	.18
MAN-I(초조성)	.72	.52
ANT-E(자기중심성)	.88	.79
KMO와 Bartlett 검증	요인 적절성	$\chi^2(p)$
	.60	42.84***

\*\*\* $p < .001$

통성과 요인 적재량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통성이 낮은 것은 해당 척도의 변인이 극단치를 내포하고 있거나, 설정한 요인을 설명하는 공통요인이 부족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곽기영, 2019).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을 MAN-I과 ANT-E으로 채택하였다.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 구성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남자 소년원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변인은 MAN-A(활동수준), SCZ-P(정신병적 경험), BOR-N(부정적 관계), ALC(알코올 문제), DRG(약물문제)이다. 분석결과 1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ALC, DRG는 공통성 및 요인 적재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성격구성에서 제외하였다. BOR-N(부정적 관계)의 경우 공통성 수치가 모호하지만, 관계에 대한 여자 소년원생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되고(임광현 외, 2020a), 요인 적재량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성격요인에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요인은 MAN-A, SCZ-P, BOR-N으로 구성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의

표 6.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구성 요인분석 결과

척도	요인 적재량	공통성
MAN-A(활동수준)	.86	.74
SCZ-P(정신병적 경험)	.77	.60
BOR-N(부정적 관계)	.58	.34
ALC(알코올 문제)	.40	.16
DRG(약물 문제)	.40	.16
KMO와 Bartlett 검증	요인 적절성	$\chi^2(p)$
	.71	84.49***

\*\*\* $p < .001$

KMO적합도는 .71, 구형성 검증은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경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지만, 구조방정식의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큰 표본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표준오차의 정확성이 의심스럽게 되어 검증 결과의 한계를 내포한다(Anderson, & Gerbing, 1988). 정확한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해선 대부분 200개 이상을 표본을 획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Holbert, & Stephenson, 2002), 모형의 복잡성이 높을 경우 구인을 형성하는 문항끼리 신뢰도 역시 표본크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Hoyle, & Kenny, 1999). 본 연구의 표본은 각 성별 구분에 따라 약 70명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의 결과 해석의 한계를 지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로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과 경로분석의 차이는 구조방정

식에 투입되는 관측변수가 경로분석에서는 제외된다. 즉 경로분석에서의 인과흐름이 일방향으로 나타내는 반면, 구조방정식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나타낸다(배병렬, 2017).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남자 소년원생의 특성이 소년원 재입원에 미치는 경로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남, 여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을 재가공하였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투입되었던 각 성별에 따른 PAI-A의 성격변인들을 SPS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저장 중 회귀식으로 산출하여 하나의 성격특성으로 추출한 뒤 분석하였다. 이를 각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으로 지정하여 경로모형에 투입시켰다. 이후 각 성별에 따른 데이터를 분리하여 그림 2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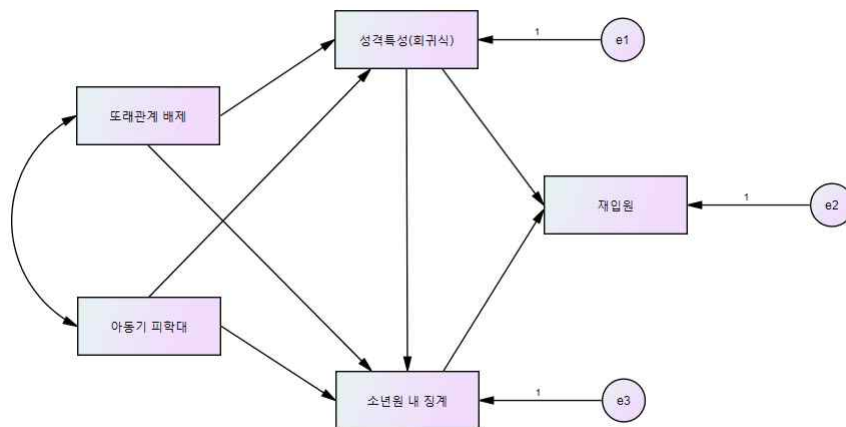


그림 2. 소년원생 각 성별에 따른 경로모형



표 7. 남자 소년원생의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

$\chi^2$	<i>df</i>	CFI	NNFI	RMSEA
2.08	2	0.99	0.99	0.02

CFI: 0.90이상(홍세희, 2000)

NNFI: 0.90이상(홍세희, 2000)

RMSEA: .10이하 - 보통적합도; .10이상 - 나쁜적합도(Browne & Cudeck, 1992)

표 8. 남자 소년원생의 특성에 따른 경로계수

구분	B	$\beta$	<i>S.E</i>	<i>C.R</i>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00	.07	.16	0.59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01	.17	.01	1.37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0	-.02	.02	-0.19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02	.18	.01	1.48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11	.06	.20	0.54
성격특성 → 재입원	.12	.23	.05	2.09*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11	.35	.03	3.11**

\* $p < .05$ , \*\* $p < .01$

표 9. Bootstrap을 활용한 남자 소년원생의 직·간접 효과 확인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07	-	.07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17	-	.17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2	.00	-.01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18	.01	.19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06	-	.06
또래관계 배제 → 재입원	-	.01	.01
아동기 학대 → 재입원	-	.11*	.11*
성격특성 → 재입원	.23*	.02	.26*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35***	-	.35***

\* $p < .05$ , \*\*\* $p < .001$

석결과, 남자 소년원생의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 수치는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관계적 요인이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에 유의한 경로를 보인 않았다. 반면 소년원 재입원의 경우 연구자가 설정한 성격특성( $\beta=0.23, p<.05$ )과 소년원 내 징계( $\beta=0.11, p<.01$ )는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자 소년원생의 경로모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Bootstrap을 활용하여 직·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적 요인 중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은 소년원 재입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고( $\beta=0.11, p<.05$ ), 성격특성( $\beta=0.23, p<.05$ )과 소년원 내

징계는( $\beta=0.35, p<.001$ ) 소년원 재입원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여자 소년원생의 특성이 소년원 재입원에 미치는 경로분석

여자 소년원생의 특성에 따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남자 소년원생과 동일 방법을 통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소년원생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수치를 나타냈다.

여자 소년원생의 경로계수는 남자 소년원생과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관계적 요인인 또래관계 배제( $\beta=0.49, p<.001$ ),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경험( $\beta=0.25, p<.05$ )은 성격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소년원 내 징계

표 10. 여자 소년원생의 경로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chi^2$	<i>df</i>	CFI	NNFI	RMSEA
0.93	2	1.00	1.02	0.00

CFI: 0.90이상(홍세희, 2000)

NNFI: 0.90이상(홍세희, 2000)

RMSEA: .10이하 - 보통적합도; .10이상 - 나쁜적합도(Browne & Cudeck, 1992)

표 11.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경로계수

구분	B	$\beta$	<i>S.E</i>	<i>C.R.</i>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03	.49	.00	4.81***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01	.25	.00	2.47*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1	.09	.02	0.69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01	.11	.01	0.86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22	-.09	.33	-0.65
성격특성 → 재입원	.14	.28	.05	2.50*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07	.33	.02	2.97**

\* $p<.05$ , \*\* $p<.01$ , \*\*\* $p<.001$

표 12. Bootstrap을 활용한 여자 소년원생의 직·간접 효과 확인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또래관계 배제 → 성격특성	.49***	-	.49***
아동기 학대 → 성격특성	.25*	-	.25*
또래관계 배제 → 소년원 내 징계	.09	-.04	.05
아동기 학대 → 소년원 내 징계	.11	-.02	.08
성격특성 → 소년원 내 징계	-.09	-	-.09
또래관계 배제 → 재입원	-	.15*	.15*
아동기 학대 → 재입원	-	.10	.10
성격특성 → 재입원	.28**	-.03	.24*
소년원 내 징계 → 재입원	.33***	-	.33***

\* $p < .05$ , \*\* $p < .01$ , \*\*\* $p < .001$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년원 재입원에 대한 영향은 남자 소년원생과 같이 성격특성( $\beta=0.28, p<.05$ ), 소년원 내 징계( $\beta=0.33, p<.01$ )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 모형 따른 소년원 재입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요인인 또래관계 배제( $\beta=0.49, p<.001$ ), 아동·청소년기 피학대( $\beta=0.25, p<.05$ )는 성격특성에 직접효과를 유의하게 나타냈고, 또래관계 배제는 재입원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beta=0.15, p<.05$ ). 관계요인은 소년원 내 징계에 대한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남자 소년원생과 마찬가지로 성격특성( $\beta=0.28, p<.01$ )과 소년원 내 징계는 재입원( $\beta=0.33, p<.001$ )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 논 의

본 연구는 소년원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

해 범죄심리학적 입장에서 소년원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재입원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남 : 66%, 여 : 68%). 이는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주장하였던 관계적, 성격적, 소년원 내 징계는 재입원 소년원생이 최초입원 소년원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 요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Healy, 1922; 김소야자, 황미희, 1983; Rotter, 1969; 김재엽, 1998; Dodge, et al, 1995; Fergusson, & Lynskey, 1997; 조보아, 이수정, 2017) 및 또래관계(곽현석 외, 2016; Ford, et al, 2006; Prinstein, et al, 2001; You, & Lim, 2015; 박지혜 외, 2019)요인이 범죄에 중요한 영향 미친다는 연구결과의 경우 소년원 입원 전 청소년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범죄 상습성을 구분한 재입원과 최초입원 소

년원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정적 관계요인은 결국 소년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기보고식 검사와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분석방법의 한계로 다소 주장되긴 어려우나 실제 비행 성향이 강한 소년원생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관계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소년원생의 성격 유형화는 연구가설 2와 같이 상의하게 분류되었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외현화 요인(MAN-I : 초조성, ANT-E : 자기중심성)으로, 여자 소년원생은 내현화와 외현화 요인이 혼합된 유형(MAN-A : 활동수준, SCZ-P : 정신병적 경험, BOR-N : 부정적 관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유형<sup>4)</sup>으로 구분되었다 (Ruiz, & Edens, 2008; 유성희, 이수정, 2018; 홍정윤 외, 2019).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I-A 하위유형 별 외현화 요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박은영 외, 2019) 내현화 요인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PAI-A의 각 하위유형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를 분석한 결과, 일반 청소년의 경우 활동수준(MAN-A)<sup>5)</sup>과 정신병적 경험(SCZ-P)<sup>6)</sup>은 내현화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았으나(박은영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는 다르게 여자

소년원생에게 적합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비행 성향이 강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환경적으로 위험상황에 노출된다(Lederman, et al., 2004). 이는 상대적으로 성, 알코올, 약물 등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남자 청소년의 비해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과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이다(Fagan, et al., 2007). 이러한 선행 연구를 유추해보면 결국 비행 성향이 강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노출되고(Cohen, & Felson, 1979),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활동수준이 증가하며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신병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비행에 적합한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이창훈 외, 2017).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소년원 입원 전 동거했던 대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약 72%가 부모 외 지인과 동거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 했을 때<sup>7)</sup>, 가정 밖에서 다양한 범죄 피해와 가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 청소년과 일관된 내적 신뢰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활동수준과 정신병적 경험은 보편화되어 있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 소년원생의 범죄 피해 확인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 동일

4) <표 1> 참조

5) PAI-A 조증의 하위 유형으로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여러 사건에 과한 관여를 하며, 사고와 행동이 과속화 되는 특성을 보인다(김영환 외, 2006).

6) PAI-A 조현병의 하위 유형으로 비일상적인 지각과 감각, 비정상적인 사고, 망상적 신념을 포함하는 비일상적인 사고를 보인다(김영환 외, 2006).

7) 소년원 입소 전 동거인을 질문 했을 경우 중복 측정을 하여 다소 측정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남자 소년원생 동거 구분 : 가족-36명, 가족 외(혼자, 친족, 시설, 친구)-34명), (여자 소년원생 동거 구분 : 가족-20명, 가족 외(혼자, 친족, 시설, 친구)-50명).

한 외현화 요인(초조성<sup>8)</sup>, 자기중심성<sup>9)</sup>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남자 청소년이 또래관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전략이라 판단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에서 강한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수록 비행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최재용 외, 2014). 즉 또래관계 내에서 강한 권력을 갖고,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Beaty, & Alexeyev, 2008)으로써 굳어지는 성격특성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세분화하여 해석하면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은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나타날 수 있는 발달단계(Maslow, 1943)로써 존중을 받고 자 하는 욕구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 발전적인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최종모형 검증에 위한 연구가설 3은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가 소년원 재입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경험했던 부정적 사건이 소년원 재입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녀 소년원생이 소년원 재입원에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별에 따른 새로운 개입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의

8) PAI-A 조증의 하위유형으로서 고양된 자존감, 과대성 및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기술, 전략,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보인다(김영환 외, 2006).

9) PAI-A 반사회적 특징의 하위유형으로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김영환 외, 2006).

를 보였다.

먼저 남자 소년원생에게 중요한 개입은 본 연구결과를 기초하였을 시 소년원 내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적응과 긍정적 사회 적응에 필요한 요인인 좌절에 대한 인내, 절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이동훈 외 2007). 일반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을 통해 교실 내 질서유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인내심 등을 동일한 환경에서 통제, 억압 받으며 습득하게 된다(이용숙, 1996; 김창남, 1996). 소년원생 역시 소년원에서 통제와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통제와 억압이 동일한 것일까? 아마 중요한 차이점은 긍정적인 적응에 필요한 요인, 즉 적응을 실패 하였을 때 나타나는 불안과 소외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추연아 외, 2019). 뿐만 아니라 형성되어 있는 규칙과 통제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개인의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의 형성은 쉽게 이루기 어렵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Browers, & Tomic, 2000). 더욱이 비행성향이 강한 소년원생을 관리, 통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처벌의 수단인 징계만으로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교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손희권, 2002; 황준성, 정신영, 2010; Bandura, 1962)를 확인하였을 때, 징계와 함께 접목해야 되는 요인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징계 이후 사회적 지지(교사 및 가족, 또래관계)와 예방적 차원의 개입, 정적강화(도기봉, 장승욱, 2014; Evens, & Richardson, 1995; 권균, 1999)가 함께 제공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남자 소년원에게 주어지는 통제와 교정의 전문성과 징계, 훈계의 방법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긍정적 행동 형성의 기본은 의미있는 타인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많은 담당교사들의 고충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강제상 외, 2011; 김미선, 박성수, 2015). 교도소와 소년원 특성 상 교정공무원 역시 폐쇄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다양한 욕구와 민원을 처리하면서 직무에 대한 소진을 느끼게 된다(김미선, 박성수, 2019). 때문에 효과적인 교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담 및 임상전문가 이외 생활과 규율을 전담으로 관리, 교정할 수 있는 인력 증진과 소년원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관계적 요인이 성격 특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소년원 재입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남자 소년원생과 같이 소년원 내 징계 요인은 소년원 재입원에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주장했던 여자 소년원생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과 여자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자 소년원생의 경우 외현화 된 특성이 문제행동을 나타낸다면,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외현화와 정신병리적인 특성이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여자 소년원생이 보고하는 우울, 불안, 사고장애 등과 같은 정신 질환적 호소는 실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

는 하나의 도움요청 징후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높은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대상 역시 부정적인 사건을 직면하면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적인 행동양상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코올, 약물 남용,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김태경, 2015).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을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자연재해 혹은 사고로 인한 사건의 직면보다 사람에게 받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강렬하게 남고, 자신을 방어적으로 형성하게 된다(장은진, 2018). 그러나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나아가 부정적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소년원생과 달리 내현화, 외현화가 혼합된 성격특성으로 소년원 재입원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자 소년원생의 경우 치료적 개입에 앞서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차에 따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40명의 청소년이다. 참여자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인원수라고 볼 수 있으나, 구조방정식 및 회귀분석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표본 수가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를 수집하여 본 연구 최종모형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보완하여 소년원생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비행 청소년(보호관찰 등) 표본의 특성이 확장 된다면 성차를 기반 한 청소년 비행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은 대부분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때문에 표본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연구의 초점이 아닌 소년원생들의 행동적 특징을 파악하고, 유형화된 요인을 재검증 한다면 전문가를 활용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PAI-A 척도는 평균 50에 표준편차 10을 나타내어, 주로 1.5~2표준편차를 벗어난 65점 혹은 70점 이상을 임상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김영환 외, 2006).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PAI-A 점수는 정상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집단 간 분석만으로 의미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이상치 집단과 정상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면 보다 명확한 소년원생의 성격특성을 추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9호와 10호 처분을 받은 대상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9호와 10호 처분 대상자 간의 죄의 질과 양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한 사유는 최종 연구 참여자 중 8호 처분<sup>10)</sup> 8명, 9호 처분<sup>11)</sup> 4명, 10호 처분<sup>12)</sup> 128명으로 대부분의 소년원생이 10호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처분에

따른 인원 분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처분에 따른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피해대, 또래관계 내 배제 경험을 통해 성격특성과 소년원 내 징계가 소년원 재입원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을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써 관계적 특성 외 다양한 요인들이 성격과 규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Allport, 1937). 간략한 예로 SNS 스트레스(Tarafdar, et al, 2007), 학업 결손과 의미있는 타인(교사 등)과의 유대(Wendy, 2001), 진로성숙 및 개인에 따른 확고한 직업관(Super, 1981; Gribbons, & Lohnes, 1964)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와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발달과 실제 청소년의 고충과의 연관성을 탐색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년범들은 결국 청소년이다. 최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기 위한 시도들이 연구되고 있다(윤지원 외, 2020). 회복적 정의란 잘못된 행동이 발생되었을 때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가해자,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참여·협력하여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Zehr, 2005). 이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조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s and Crime, 2006).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항을 긍정적으로

10)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1)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2)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최중진, 2019).

본 연구자는 회복적 정의를 확장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년원생에게도 적용하여 가해자인 청소년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 국가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년원 퇴원 이후 소년원생이 사회로 복귀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한 성인들의 조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 나아가 가·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참고문헌

강제상, 김광구, 김영곤 (2011). 교정공무원의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15(4), 309-338.

곽기영 (2019). SPSS를 이용한 통계데이터분석. 서울: 청람.

곽현석, 김종훈, 김경성 (2016).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가해경험이 인과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7(3), 37-56.

검찰청 (2019). 2018 범죄분석.

권균 (1999). 체벌의 가능성과 한계: 인간탐구의 행동과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국민일보 (2020). 부산 청소년범죄자 하루 15명씩 꾸준히 검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48844&code=61121211&cp=nv> (2020. 09.

12. 인출).

김남규, 조운오 (2017). 역기능적 가정이 청소년 재범에 미치는 영향: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심으로. 아동보호연구, 2(2), 95-112.

김대진, 박민철, 이귀행, 이상열, 오상우 (2015).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 요인분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3), 226-235.

김미선, 박성수 (2015). 여성교정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교정연구, 66, 145-168.

김미선, 박성수 (2019). 교정공무원의 직장-가정갈등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연구, 29(2), 159-182.

김소야자, 황미희 (1983). 비행 청소년 발생과 가족환경과의 상관관계 연구: 일반가정과 비행청소년 가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3(1), 34-41.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이수정, 조은경, 홍상황 (2006).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김원경 (2014). 청소년 음주행동 영향요인의 성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191-210.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2010).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비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4), 487-508.

김정호 (2020). 담뱃재 먹이고 불로 지지고 장애인 괴롭힘 무더기 실행.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0011>(2020. 09.12 인출).



- 김재수, 손철우 (2019). 분노표출 비행청소년의 대안교육 경험연구. *보호관찰*, 19(2), 53-110.
- 김재엽 (1998). 한국 가정의 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41-64.
- 김준호,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김지선 (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김지현, 박은영, 홍상황 (2019).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 PAI-A-PS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19(2), 111-145.
- 김태경 (2015). 범죄 피해자 상담: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실무 전략. 서울: 학지사.
- 김창남 (1996). 청소년집단의 하위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5, 210-249.
- 김효창 (2014). 혼자서 완성하는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도기봉, 장승욱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체벌행동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7, 197-220.
- 민수홍 (2019). 2019 한국의 사회동향: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대전: 통계청
- 박미량 (2014).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통향*, (45), 106-132.
- 박상식 (2017).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5(4), 99-126.
- 박지선 (2016). Gender Differences among juvenile offenders in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functioning.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537-554.
- 박은영, 박은영, 홍상황 (2019). PAI-A 증보판의 내재화 및 외현화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3), 315-337.
- 박지혜, 오주화, 정현희 (2019). 초기 청소년의 비행 피해-가해 간의 중단적 관계에서 또래소의, 우울 및 공격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0, 5-27.
- 박진희, 김현주 (2012).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4(3), 75-96.
- 박찬걸 (201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192-222.
- 박혜란 (2008).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KSOTRAS의 재범 추적 연구: 생존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법무연수원 (2019). 2018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 (2020). 2019 범죄백서.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성태제 (2019). 현대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8판). 서울: 학지사.
- 성현준, 임광현, 최미희, 이수정 (2019). 청소년기 사회적 배제 경험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연구*, 32(2), 171-206.
- 세계일보 (2020). 미성년 성범죄, 10명 중 6명 미성년이 범행.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0011> (2020. 09. 12. 인출).
- 손희권 (2002). 중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교육학 연구*, 40(5),

- 227-295.
- 신현숙, 이해경, 이경성 (2006). 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MMPI-A 프로파일 비교. *청소년학연구*, 13(4), 197-223.
- 양은경, 김병배, 이수정 (2018). 소년범 재범위험요인에서의 성차연구: JDRAI-D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1), 111-125.
- 유성희, 이수정 (2018). PAI-A 내현화와 외현화 2요인 모형 검증 연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9(3), 163-184.
- 윤일중, 박우현, 이수정 (2012). 소년원생들의 총범죄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범요인의 경로분석. *한국범죄학*, 6(2), 37-81.
- 윤지원, 이해경, 최중진 (2020). 청소년대상 회복적 정의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2000년 ~ 2018년. *청소년학연구*, 27(4), 119-139.
- 이나현, 조운오 (2020). 부모의 소년원 방문과 비행 청소년 시설 적응.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123-133.
- 이남희, 이봉건 (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축발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27-140.
- 이동훈, 정원식, 신호정, 이창호, 박관성, 송은미, 백윤미 (2007). 청소년 반사회적 행동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연구 II.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92.
- 이병관, 윤태웅, 노환호, 임혜빈 (2019).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1), 127-152.
- 이용숙 (1996). 한국 학교 문화의 특성과 잠재적 교육과정. *한국문화인류학*, 29(2), 289-340.
- 이창훈, 안계원, 김원기 (2017).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된 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3(4), 1-14.
- 이혜정, 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 임광현, 신나영, 성현준, 최미희, 이수정 (2020a). 소년원생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경계선적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8(1), 411-429.
- 임광현, 신나영, 성현준, 최미희, 김광수, 이수정 (2020b). PAI-A를 활용한 소년원 재입원 결정요인 탐색: 최초입원·재입원 소년범 비교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4(1), 61-86.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민, 탁희성 (1994). 누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유희, 손외철 (2016).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 위험요인 분석. *보호관찰*, 16(1), 221-251.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23(3), 725-740.
- 장은진 (2018). 범죄피해 외상 경험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295-316.
- 조보아, 이수정 (2017). 소년범의 피학대 경험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신질환의 매

- 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79-95.
- 조운오 (2012). 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79-98.
- 청와대 (2020). '국민청원 3년 게시판 1호 청원'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226> (2020.12.05. 인출).
- 추언아, 남현우, 정진성, 박진선, 손윤영, 이정범 (2019). 소년원학교 청소년들의 수용생활 기간 동안의 환경생리학적 연구. 교정연구, 29(3), 139-159.
- 최미희, 이승원, 이수정 (2019). 특수인성검사(SPI-III) 타당화 연구를 통한 재범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신경심리학적 고찰. 한국범죄학, 13(3), 25-38.
- 최재용, 한보영, 이운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1), 35-65.
- 최중진 (2019).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신뢰와 존중의 학교 문화 만들기. 서울교육, 236, 114-123.
- 최해연, 곽윤영, 배주미 (2015).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심리사회적 결정요인. 재활심리연구, 22(1), 223-236.
- 한국경제 (2020). '제보자들' 날로 심각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의 실상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22300I> (2020. 09. 12. 인출).
- 황준성, 정신영 (2010). 학생체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및 사례연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허 준 (2013). 소년범죄자의 부모, 학교애착 및 비행친구가 재범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219-238.
- 홍봉선 (2013).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5(3), 207-23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정윤, 홍상황, 이수정 (2019). PAI 내현화 및 외현화 2요인 모형 검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29-45.
- 齊藤豊治 (2007). 少年事件における非行事實と要保護性-要保護性に関する試論. 鈴木茂嗣先生古稀祝賀論文集, 成文堂.
- Achenbach, T. M., Ivanova, M. Y., Rescorla, L. A., Turner, L. V., & Althoff, R. R. (2016).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5(8), 647-656.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ltschuler, D. M., & Brash, R. (2004). Adolescent and teenage offenders confront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entr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72-8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 411-423.
- Bandura, A. (1962). Punishment revisited. *Journal*

- of Consulting Psychology, 26*, 36-42.
- Beaty, L. A., & Alexeyev, E. B. (2008). The problem of school bullies: What the research tells us. *Adolescence, 43*(169), 1-11.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rowers, A., & Tomic, W.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 burnout and perceived illnes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3*, 522-537.
- Bullis, M., Yovanoff, P., & Havel, E. (2004). The importance of getting started right: Further examination of the facility-to-community transition of formerly incarcerated yout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8*(2), 80-94.
- Chesney-Lind, M. (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35*, 5-29.
- Claire, K., & Dixon, L. (2017). The effects of prison visits from family members on prisoners' wellbeing, prison rule breaking, and recidivism: A review of research since 1991. *Trauma, Violence, & Abuse, 18*(2), 185-199.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32-643.
- Evens, E. D., & Richardson, R. C. (1995). Corporal Punishment : what teachers should know.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27*(2), 33-36.
- Fagan, A. A., Van Horn, V. L., Hawkins, J. D. & Arthur, M. W. (2007). Gende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self-reported serious delinquency. *Prevention Science, 8*, 115-124.
- Fagot, B. L., & Kavanagh, K. (1990). The prediction of antisocial behavior from avoid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Child Development, 61*, 864-873.
- Fergusson, D. M., & Lynskey, M. T. (1997). Physical punishment ·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and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21*, 617-630.
- Ford, J. D., Chapman, J., Mack, J. M., & Pearson, G. (2006). Pathways from traumatic child victimization to delinquency: Implications for juvenile and permanency court proceedings and decisions.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57*(1), 13-26.
- Gilman, R., Carter-Sowell, A., DeWall, C. N., Adams, R. E., & Carboni, I. (2013). Validation of the ostracism experience scale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25*, 319-330.
- Gribbon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3-20.
- Hackett, R. J., Sagdeo, D., & Creed, F. H. (2007). The physical and social associations of common mental disorder in a tribal

- population in South Indi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712-715.
- Healy, W. A. (1922). *The Individual Delinquent*. Boston: Little & Brown.
- Holbert, R. L., Stephenson, M. T. (200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the communication studies, 1995-2000.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 531-551.
- Hoyle, R. H., & Kenny, D. A. (1999). *Sample size, reliability, and test of statistical mediation*. In R. H. Hoyle (ED.), *Statistical strategies for small sampl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Lederman, C. S., Dakof, G. A., Larrea, M. A. & Li, H. (2004). Characteristic of adolescent females in juvenile de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7, 312-337.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orey, L. C. (2003). *Essentials of PAI Assessment(Vol. 29)*. John Wiley & Sons.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0(4), 479-491.
- Rotter, A. (1969). *Social Learning an Clinical Psychology, Cited from Modern Psychopathology*. (1954), ed. by Theodore Millon Press of W. B., Saunders Co.
- Ruiz, M. A., & Edens, J. F. (2008). Recovery and replica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mensions within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0(6), 585-592.
- Salekin, R. T. (2008). Psychopathy and recidivism from mid-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Cumulating legal problems and limiting life opportun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2), 386-395.
- Super, D. E. (1981). *Approaches to Occupational choice and career development*. In A. G. Watts, D. E. Super, & J. M. Kidd, *Career development in Britain*. Cambridge, England: Hobson's Press.
- Straus, M. A., Hamby S. H.,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Tarafdar, M., Tu, Q., Ragu-Nathan, B. S., & Ragu-Nathan, T. S. (2007). The impact of technostress on role stress and productivit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4(1), 301-328.
- Yampolskaya, S., & Chuang, E. (2012). Effects of mental health disorders on the risk of juvenile justice system involvement and recidivism among children placed in out-of-home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2(4), 585-593.
- You, S., & Lim, S. A. (2015). Development pathways from abusive parenting to delinquency: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Child Abuse & Neglect*, 46, 152-162.
-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s and Crime. (2006).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New York, NY: United Nations.
- Wendy, M, C. (2001). *Integrat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social cognitive theory to predict urban high school students distress, achievement, and ret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15).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Pearson New International Edition CourseSmart eTextbook*. Psychology Press.
- Wytt, G. E., Guthrie, D., & Notgrass, C. M. (1992). Differential effects of women's child sexual abuse and subsequent sexual revictim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167-173.
- Zehr, H. (2005).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Scottsdale, PA: Herald Press.
- 1차원고접수 : 2021. 02. 08.  
심사통과접수 : 2021. 03. 24.  
최종원고접수 : 2021. 03. 31.

JAMS 2.0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 A study on the gender differences among re-detained juvenile focusing on personality traits, relationships,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Sung Hyun Jun

Leem Gwang hyun

Lee Soo jung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uses path analysis to investigate effects and the structure of gender, interpersonal experience,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between a group of adolescents incarcerated for the first time and a group of adolescents who have been detained before. To conduct the study, PAI-A, ostracism experience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crimes and demographic statistics information of 140 detained juvenile offenders (male adolescents: 70, female adolescents: 70) were collected. The results shows that first, externalizing factors (irritability and egocentricity)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detained juveniles re-detained and who were not. in case of female detained juveniles shows that re-detained juveniles appeared higher score in factor of activity level, psychotic experiences, negative relation ships which is mixture of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ing). Seco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male juveniles did not affect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however, in case of female juveni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ity traits. Third,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the model suitability of male and female juveniles in detention centers was satisfactory, and it was confirmed that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were a significant pathway for re-detained to juvenile centers. However, as for the relational factor, only female juveniles showed a significant path. In particular, ostracism experienc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ity traits and indirect effect on re-detained to juvenile centers.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the case of re-detained to juvenile centers. And in particular, it showed that personality traits and institutional misconduct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are closely related factors to re-detained.

*Key words* : juvenile center, juvenile offenders, gender, two factor model, institutional misconduct, second offender, re-detained